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편 23:1-6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잘 아는 시편이다. 중요한 응답이 또 한번 우리에게 고백되는 시간 되기 바란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성경은 많은 역사적 사실을 써 놓고 원인과 답을 제공하고 있다.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성경의 권위이다. 성경은 다른 종교책들처럼 지어내거나 자기의 개인 체험을 말한 기록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답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건은 알지만 왜 일어났고, 의미와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사람중에는 없다. 각자 나름대로 과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역사가이라고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정확한 답을 주셨다. 정확하다는 증거는 그대로 해보면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다. 성경은 이런 많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개인의 신앙 고백도 써 놨다. 오늘 시편처럼 문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과 약속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예언과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경학자들은 약 7천 개 정도가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예언은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불신자에게는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 예언을 벗어난 사람은 없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지배되고 정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좋다. 인간 마음대로 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말씀 받는 날이 되기 바란다.

1. 여호와와 나의 목자

오늘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본문이다. 아마 외우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도 복음을 모를때에도 가슴에 많이 와 닿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도를 누린 자의 깊은 고백이다. 그리고 이 안에는 중요한 약속도 들어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다. 전에 성경에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번역했었다. 개정된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번역했다. 내게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단어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완벽한 표현인데, 바꿨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다시 보니, 영어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써 놨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정상이고 바른 표현일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 전에는 분명히 희생제사라고 번역했

었는데, 개정에는 그냥 제사라고 써서 하나님의 뜻을 희석했다. 물론 원문은 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다는 해석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문은 맞다 할 지라도 희생제사라고 표현해주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희생제사는 창세기 3장 21절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뭔가 불분명한 표현을 써서 메시지를 희석시켰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에 내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되심으로 그냥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인데, 내게라는 단어를 씌으로써 하나님을 평가하고 인간 중심의 평가를 한 것이다. 뭔가 평가하는 느낌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함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울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였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것이라고 하였다. 매일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쫓아가려고 한다. 틀린 곳이고 거기 가면 죽는데도 자꾸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5절에 보면 내가 원수를 만나면 그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를 만났는데, 내 잔이 넘칠 것이라고 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원수는 나에게 문제를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잔이 넘치도록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변함없는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참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시이고 고백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답은 항상 같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오늘도 동역자가 되신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얼마전에 봤는데, 복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만일 24가 되면 하나님이 24시간 목자가 되실 것이다. 당연히 그 결과가 25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입사귀가 단 하루도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항상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신다고 하였다. 때로는 원수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 오히려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과정이다. 그리고 전부다 역전이고 정복이다. 이것이 본래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약속의 피이다. 다 이긴 것이다. 지는 법은 하나도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뒤집어 저서 축복이 된다. 항상 오히려 중요한 응답을 받는다. 문제는 원수가 준 것이다. 그 원수를 만났을 때 내 잔이 넘친다. 아무도 못 말린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소리를 해도 필요없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약속의 피를 고백하라.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누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누림이 내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것이 고백이다. 때가 되면 눈이 열리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내 가슴에

전달이 되어 진다. 이렇게 해서 한걸음한걸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된다. 이러다 24가 되면 모두 정복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들어와 언약이 되면 진짜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답이 나면 사람이 말이 틀려지게 되어 있다. 사역자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렸다. 그 말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대로 하면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재물로 살리는게 아니라 말로 살려 놓고 재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 없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계속 더 축복, 재료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다. 내가 소원하는 곳으로 오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말씀은 살았고. 너는,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너의 인생을 살라. 모래 땅도 필요없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보혈을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다. 다시 한번 언약이 회복되므로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 되기를 바란다. 지속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의 잔을 넘치게 할 것이다. 무엇을 지속하는가? 내 언약, 약속의 피를 지속하고 내 소원을 지속하면 내가 너의 원수 앞에서 너의 잔이 넘치게 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임하기 바란다.

2. 파수꾼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중대한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신앙고백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다는 보도를 듣는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내 개인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과 축복이 그 자체가 사단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누리고 응답 받는데 그게 전쟁이다. 우리는 파수꾼을 누리는 것이다. 문 열리면 가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잎사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미국의 파수꾼이고 미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하다. 멀리 봐야 한다. 적군이 오는지 봐야 한다. 높은 탑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높은 탑이 필요하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높은 탑이 필요하다. 이 탑은 적을 공격하고 막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 탑이 바로 우리가 잡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언약을 누림으로 높은 탑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깊은 요새가 되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고 기도이다. 이런 일을 지속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 여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되돌아 보면 그것이 이정표가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인생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자꾸 눈을 열어서 더 분명한 이정표가 보이게 할 것이다. 더 시대적인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24, 25, 영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인생의 출발이 바로

그리스도, 그 능력의 피 인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 파수꾼에게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이었다. 이 파수꾼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기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냐? 그리스도가 언약이 된 사람, 이것을 전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이 모든 것을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항상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양에게 실만한 물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체가 시대적인 파수꾼의 권세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미국에 살겠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에 우리를 부른 것은 최고의 것을 맡기신다는 것 아닌가? 전에는 나도 몰랐다. 메시지에 나와도 내 안에 안 들어왔었다. 살아가면서 깨닫기를 그리스도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셨다. 아무도 할수 없고, 오직 우리만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문을 여는 첫 번째 교회가 될 것이다. 미국에 참 복음과 성경적 전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안된다 할 지라도 이것을 언약으로 잡은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이유없이 우리를 미국에 불렀겠는가? 하나님은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딱 한 개다. 복음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너는 이 복음 들고 가서 그 나라를 살려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할 복음을 주셨다. 그 기준은 성경에 맞는 복음이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유없이 우리를 미국에 부르셨겠는가? 그 이유가 다른 이유인가? 우리는 수 많은 이유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게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로 불렀겠는가? 거기다가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눈을 떠야 한다. 내가 무엇이며 지금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다. 나의 산업이 이 언약에 잡혀야 한다. 미국에 복음 운동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진짜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돈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되고 안되고는 다음 문제이다. 니가 과연 나와 생각이 통했나? 나는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나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 하신다. 사명 회복해라. 그리고 미국에 파수꾼이 되어라. 그리하여 미국을 지키고 살려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미국을 지키고 미국을 살리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나라, 미국, 여기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생각이 있어야 하겠는가? 기도해보고, 거기서 미국 끝까지 가는 기도제목들 잡기 바란다. 특정한 것을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다. 미국에서 최고 가는 미용실이 되어야 한다. 미국 끝까지 가는 기도제목, 미국에서 최고가는 직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언약 잡기 바란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래서 오늘도 위하여 다시 한번 언약 잡는 날이 되기 바란다.